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arried Men and Women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강 사 하 상 희*
Dept.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
Lecturer : Ha, Sang-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arried men and women.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23 married men and 188 married women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by AMOS 7.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men and women's family-of-origin experience(family of origin health, parents' marital conflict, triangulation) had a direct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Secondly, men's family-of-origin experience had a direct effect on psychological adjustment(self-esteem, depression). But women's family-of-origin experience had a indirect effect on psychological adjustment. Finally, men an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had a direct effect on psychological adjustment.

▲주요어(Key Words) : 원가족 경험(family-of-origin experience),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justment)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대부분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혼부부들은 자신의 부모와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해나가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확대가족 형태를 유지하며 원가족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교신저자 : 하 상 희(E-mail : sh0522@hanmail.net)

많은 부부들이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개인 및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문제 등을 부모와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으며, 물리적으로 부모와 가깝게 살지 않고 있더라고 자신이 어린시절 경험했던 부모와의 관계를 토대로 자신의 문제와 부부관계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Hovestadt 등(1985)은 원가족을 한 개인이 태어나서부터 성장해 오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처럼 기혼부부의 결혼생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가족의 영향력은 결혼을 통하여 새롭게 가족을 이룬 개인과 새로운 가족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선행연구(김현정・김명자, 1999; 유

은희, 1991; 최난경, 2003)들에서 결혼이후 개인 및 부부 관계에 미치는 원가족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 특히,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건강하지 못한 원가족 경험은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정서적 건강과 부부관계 적응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김현정(1999)의 연구결과 입증되었다. 특히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정서적·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원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하상희, 2007a).

원가족 경험이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원가족 내에서 접하게 되는 경험들을 뜻하는 것으로(유은희, 1991),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자신의 결혼생활이 원가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하상희, 2007b), 우리나라 가족관련 연구에서 핵가족의 가족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가족도 포함시켜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을 어린시절 성장하면서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삼각관계로 측정하고자 한다. 원가족 건강성이란 어린시절 태어나고 성장한 가족안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지각한 정도를 의미하며, 부모의 부부갈등이란 원가족에서 성장할 때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정도를 의미한다(하상희, 2007b). 부모자녀삼각관계는 부부관계에서 불안이 증가할 때 자녀를 부부의 정서적 문제에 연루시키는 형태를 의미하며(Becvar & Becvar, 1997), 이 세 변인들 간에는 상호관련성이 밀접한 것으로 선행연구결과(김경자, 2004; 이종원, 2002; 전연진, 2002; 하상희; 2007b) 입증되었다.

원가족 경험과 관련된 변인들은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유은희, 1991; 전춘애, 1994; 최난경, 2003; 하상희, 2007b), 이와같은 연구들에서 현재의 결혼생활은 원가족에서 경험한 상호작용의 질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 및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Gerson(1993)도 원가족의 관계와 역동이 현재 부부관계에 재발되기 때문에 부부문제는 원가족에 대한 통찰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김수연, 2001 재인용).

많은 선행연구(권정란, 2005; 김순기, 2001; 김현정, 1999; 윤혜영, 2000; 이종원, 2002; 전춘애, 1994; 최난경, 2003; Fine & Hovestadt, 1984; Sabatelli & Suzanne, 2003)들에서 원가족에서의 긍정적·부정적 경험을 한 기혼남녀 모두 원가족 경험은 지금 현재 자신의 부부 및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원가족 경험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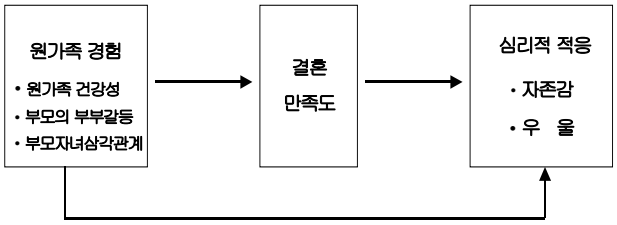
또한 원가족의 영향력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리적 적응이란 개인의 경험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들이 현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서적 적응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을 긍정적 적응 상태인 자존감과 부정적 적응상태인 우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선행연구들에서(김완일·김재환, 1992; 김현정·손정락, 2006; 노은여·권정혜, 1997; 이천숙·이희자, 1997; Chung & Gale, 2006; Peleg-Popko, 2002) 자존감과 우울은 높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자존감은 자신이 갖고 있는 특질들에 대한 자기 평가를 통해 갖게 되는 하나의 신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상태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격구인이다(어주경, 1998). 정문자(2003)는 자존감이란 가족내 관계속에서 학습을 통해 배워서 얻어지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원가족 경험과 자존감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결과들에서 원가족 건강성과 자존감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권대희, 2003; 양진선, 2004; 오정옥, 1999; 윤세은, 2000), Coopersmith(1967)와 Demo 등(1987)도 자존감이 원가족 변인과 관련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자존감은 결혼만족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박영화와 고재홍(2005), 노은여와 권정혜(1997)의 연구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상태부터 지속적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포함하는 정서장애 현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를 포함한다(김성일·정용철, 2001). 원가족 경험과 우울의 관련성에 대해 Lewis(1976)는 원가족 경험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지각할 때 자녀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적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고, Lopez(1991) 그리고 Sabatelli와 Anderson(1991)도 원가족과 우울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우울과 관련하여 대인관계요소, 특히 부부관계 요소(marital factor)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노은여·권정혜, 1997), Coleman과 Miller(1975), Weiss와 Avid(1978)등의 선행연구결과 결혼만족도와 우울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원가족 경험인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는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원가족 경험은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적응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원가족 경험과 관련된 결혼만족도나 결혼적응 등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권정란, 2005; 김현정, 1999; 이종원, 2002; 전춘애, 1994)이나 원가족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권대희, 2003; 김순기, 2001)처럼 두 가지 변인 사이의 관계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가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이후 부부관계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그림 1> 연구모형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인과모델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

원가족 영향력과 관련하여 Bowen은 기혼자녀의 가족관계와 부부관계는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상호작용방식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현재 핵가족의 부부관계를 이해하는데 원가족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김경자, 2004). 어린시절 성장하면서 지각한 원가족 경험을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삼각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원가족 건강성은 어린시절 개인이 성장한 가족 안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지각한 정도로 원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성을 의미한다(하상희, 2007a). Williamson(1978)은 많은 사람들이 원가족에서 받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원가족 건강성은 자녀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의 부부갈등은 원가족에서 성장할 때 부모가 상호간에 갈등하는 것을 자녀가 지각한 것으로(하상희, 2007b), Cummings(1989)는 자녀가 부모갈등을 심하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결혼생활에서도 부부갈등을 심하게 겪게 된다고 하였다(전영주・이성희, 2006, 재인용). 그러므로 부모의 부부갈등은 기혼자녀의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최현미(1997)는 부부간에 갈등이 심할 때 부부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끼어들이는 경우 자녀가 심리적・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으며, Bowen은 이러한 현상을 삼각관계라고 하였다.

삼각관계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고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때, 자녀와 같이 취약한 제삼자를 개입시켜 형성되는 관계로(Becvar & Becvar, 1997), 일단 삼각관계가 형성되면 불안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로 인식하게 된다(김용태, 2000). 부모자녀삼각관계란 부부관계에서 불안이 증가할 때 자녀를 부부의 정서적 문제에 연루시키는 형태를 의미한다(Becvar & Becvar, 1997). 한국은 가족구조의 특성상 부모와 자녀의 친밀성이 높고 경계선이 밀착되어 있다(엄예선, 1990).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고, 부부체계 사이에 자녀를 놓고 삼각관계를 형성하기가 쉽다(송정아・최규련, 1997). 선행연구 결과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의 세 변인들 간에는 상호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김경자, 2004; 이종원, 2002; 전연진, 2002; 하상희; 2007b).

2.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

결혼만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부부관계에서 판단되거나 인지되는 경험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평가 또는 태도(권정혜・채규만, 1998)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결혼생활 결과사이의 일치정도를 의미한다(Burr, 1979). 결혼에 대한 기대는 결혼 전 원가족에서 부모님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결혼 이후의 여러 가지 요인도 중요하지만 원가족에서 경험한 요인이 현재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 중 원가족 관련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은희(1991)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이 균형 있게 발달한 성인 자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가족에서는 부부의 결혼생활이 부부체계 뿐만 아니라 출생 가족도 포함시켜 연구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춘애(1994)의 연구에서는 원가족에서 경험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관계는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차후의 결혼생활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원가족에서의 경험은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Olson과 Hawley(1992)는 자신이 자라온 원가족과 유사한 가정을 이루거나 원가족에 대한 반발로 정반대의 가정을 이루기가 쉽고 두 사람이 성장해온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들의 결혼 생활은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최난경, 2003, 재인용). 또한, Amato와 Booth(1994)는 부모의 낮은 결혼의 질과 성인 자녀의 결혼생활에 관하여 원가족에서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자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Wambolt와 Reiss(198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갈등은 자녀들의 결혼생활의 질과 관련이 높으며, 원가족 요인은 기혼부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6, 재인용). 반면, Goodrich, Ryder와 Rausch(1968), Snyder(1979)등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았다고 회상한 배우자들은 자신의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전현진・박성연, 1999, 재인용).

이와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원가족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은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3. 기혼남녀의 심리적 적응

적응이란 인간의 내적 영향력과 생태적 환경의 영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호과정으로 심리적 적응은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들이 현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 전반적인 정서적 적응상태를 잘 나타낸다(이은아, 2007).

자존감과 우울의 관련성에 관해 Lewinsohn과 그의 동료들(1981)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우울과 자존감이 부적상관이 있음을 검증하였고, Brown과 그의 동료들(1986)은 낮은 자기존중감이 우울성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심희옥, 1996, 재인용).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리적 적응을 자존감과 우울의 두 가지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존감은 가족관계 안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성장기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중요하다. Satir는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로 자존감을 습득하고자 하며, 가족관계 안에서 자존감이 습득되고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권대희, 2003; 강승규, 1994; 정문자, 2003). 선행연구들의 결과(권대희, 2003; 김현정, 1999; 엄혜정・정혜정, 2006; 양진선, 2004; 하상희, 2007b)에서도 원가족 경험과 자존감은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한 경우 부모자녀간에 삼각관계가 형성되며, 자녀는 자율적이지 못하고 한 부모에게 거부당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가치 없다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옥경희, 1995). 실제로 엄혜정과 정혜정(2006)의 연구결과 부모자녀 삼각관계와 자존감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특히 청소년기 이후에 우울증상의 빈도가 증가한다(최규련, 1999). 청소년기 이후의 우울과 관련된 변인으로 가족관계나 부모와의 갈등 등이 중요한 변수로 언급되어 왔다(김성일・정용철, 2001; 최선남・최외선, 1995; Downey & Coyne, 1990). 특히 원가족에서 경험한 건강하지 못한 부모-자녀 관계나 부모간 갈등 등이 우울을 예견하는 강력한 요인임이 밝혀졌다(이민식, 1999; 최선남・최외선, 1999; Davis & Cummings, 1994). 또한 최선남과 최외선(1995), 최외선 등(1997)의 연구에서 가정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화목하지 못할 때 우울성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환경변인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검증되었다.

4.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

개인이 태어나고 성장한 원가족에서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심리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성장 후 결혼생활을 영위하게 될 때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전춘애, 1994).

Cunnington(1991)과 Forrest(1991)에 의하면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해 온 경우 그 자녀도 결혼에서 행복감을 경험하기 쉽고 이혼할 가능성도 적은데, 여러 연구들(Coodrich et al., 1968; Snyder, 1979)에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았다고 회상한 배우자들은 자신의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전현진・박성연, 1999, 재인용).

Amato와 Booth(1994), Buckanan 등(1991)은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대인관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부관계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전현진・박성연, 1999). 이처럼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하고, 서로 적대시 하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녀들은 부모 사이에 끼인 느낌을 가지게 되며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이와같은 삼각관계는 가족내의 정서적 규제가 실패하였을 때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간의 친밀한 관계로 인식되어 질 수 있다.

부모와의 삼각관계 경험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Benson 등(1993)과 Larson 등(1998)은 성장할 때 원가족에서 부모와 삼각관계를 경험한 자녀들은 갈등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결혼이후 부부간 갈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삼각관계를 단독변인으로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원가족에서 분화의 한 측면으로 삼각관계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가족에서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강한 삼각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Guerin과 그의 동료들(1987)은 결혼 전 부모와의 삼각관계 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부부관계를 진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원가족 분화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개인이 원가족에서 잘 분화할수록 부부갈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연석, 1999; 이창만, 1992; 한미향, 1999; Bartle-Haring & Sabatelli, 1998) 원가족에서의 삼각관계 경험이 부부관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개인이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수준은 원가족 내 대인관계에 필요한 정서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며, 개인의 정서적 건강과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ne, 1988). 즉 원가족으로부터 적절히 분화되어 있는 개인은 심리적 적응을 잘하며, 결혼 후에도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정은희, 2004).

선행연구들(김순기, 2001; 김현정・김명자, 1999; 전춘애, 1994)에서 원가족에서 경험한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질이 차후 개인의 생활 및 부부의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간 관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살펴 본 김소향(1994)과 최인실(2004)은 부모간 갈등이 심할수록 자녀는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김현정과 김명자(1999)는 자존감을 원가족 건강성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엄혜정과 정혜정(2006)의 연구에서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와의 삼각관계는 자녀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전희(1995)는 부모자녀의 상호태도나 가족 내 인간관계와 같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건강할 때 자녀의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가정환경과 자존감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물리적 환경보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할 때 자존감이 더 높아진다고 했다. 김현정(1999)의 연구에서도 원가족에서 경험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차후의 결혼생활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상희(2007b)의 연구에서도 원가족 건강성은 자존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Nelson & Benedict, 1994; Levine, 1991)에서 개인의 건강한 자아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시킨다고 하였다(이경희, 1998, 재인용). 또한, 자존감은 대인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자존감이 높을수록 타인과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으며 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다(김상빈, 1994).

지금까지 선행연구의 고찰 결과 부부 각자의 기대와 욕구는 어린시절부터 원가족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원가족 경험은 부부관계와 관련이 있으며(김경자, 2004; 김현정, 1999; 이종원, 2002; 전춘애, 1994), 원가족 경험과 부부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기혼남녀가 결혼하기 전 경험인 원가족과의 관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원가족 경험과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력을 인과모델을 설정하여 검증해보고자 한다.

4. 연구가설

이상과 같은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기하였다.

<연구가설 1> 기혼남녀가 지각하는 원가족 경험은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기혼남녀가 지각하는 원가족 경험은 심리적 적응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는 심리적 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전주시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2006년 4월~5월까지 4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345부를 회수하고, 이중 부실 기재한 34부를 제외한 311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성별은 남자 123명, 여자 188명이며, 조사대상자의 전체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 수	분 류	빈도(%)	변 수	분 류	빈도(%)
성 별	남 자	123(39.5)	학 력	고졸 이하	131(43.1)
	여 자	188(60.5)		대졸 이상	173(56.9)
남자나이	35세 미만	10(8.2)	여자나이	35세 미만	48(25.5)
	35~40세 미만	38(31.1)		35~40세 미만	79(42.0)
	40~45세 미만	33(27.0)		40~45세 미만	39(20.7)
	45세 이상	41(33.6)		45세 이상	22(11.7)
결혼기간	10년 미만	81(26.5)	소 득	200만원 미만	92(33.1)
	10~15년 미만	120(39.2)		200~400만원 미만	129(46.4)
	15~20년 미만	105(34.3)		400만원 이상	57(20.5)

평균 연령은 남자 43.2세, 여자 38.5세이다. 가계소득은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129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소득은 373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인 316만원(통계청, 2006)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10-15년 미만이 120명(39.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13.8년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원가족 경험

원가족 경험은 기혼남녀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원가족 건강성과 원가족에서 지각한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로 측정하였다.

(1) 원가족 건강성

Hovestadt와 그의 동료들(1985)이 제작한 Family-of-Origin Scale(FOS)의 제작 원리를 바탕으로 한국가족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최현미(1997)의 원가족 척도(the Family of Origin Scale-55: FOS-55)중 원가족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측정하는 16문항을 사용했다.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 건강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의 경우 역점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남자 .92, 여자 .91이다.

(2) 부모간 갈등

Porter와 O'Leary(1980)의 O'Leary-Porter Scale을 어주경(1998)이 번역,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10번 문항을 제외한 총9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많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남자 .88, 여자 .87이다.

(3) 부모자녀 삼각관계

전연진(2002)이 재구성한 원가족 분화 경험 척도중 삼각관계와 관련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삼각관계는 특별한 형태의 세 사람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에서는 부부간에 긴장이 발생하면 긴장을 해소, 완화시키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자신들의 문제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원가족에서의 경험한 문항내용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산출 방법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남자 .91, 여자 .90이다.

2) 결혼만족도

최규련(1994)이 개발한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4, 10, 11, 12번의 부정적 문항은 역점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남자 .94, 여자 .95이다.

3) 심리적 적응

기혼남녀가 현재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 적응상태는 자존감과 우울 두 가지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1) 자존감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어주경(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말 아니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3, 5, 8, 9, 10번의 부정적 문항은 역점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남자 .87, 여자 .82이다.

(2) 우울

Radloff(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를 Chung과 Gale(2006)이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했던 우울증상에 대해 0점에서 3점까지 네 개의 수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4, 8, 12, 16번 문항을 역점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남자 .88, 여자 .90이다.

3. 자료분석

SPSS WIN 12.0과 Amos 7.0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으며, 추정법으로는 사례수에 덜 민감한 일반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 GLS법)을 사용하였다.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지수로 절대적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인 X^2값과 ??며 이 값이 작고 확률값이

클수록(p>.05)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고려되는 RMSEA값은 0.09 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05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시키는 것이며, GFI, AGFI, CFI 값은 0.9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한다.

Ⅳ. 결 과

1. 원가족 경험과 자존감 및 부부갈등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게 되므로 이에 앞서 기초분석으로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원가족 건강성,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과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자존감, 우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원가족 경험인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삼각관계는 원가족 건강성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시절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원가족 건강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자녀 삼각관계가 심했던 것으로 지각할수록 원가족 건강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부부갈등과 원가족 건강성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님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삼각관계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 경험과 결혼만족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삼각관계와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할수록, 부모자녀삼각관계가 심하지 않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원가족 건강성만 결혼만족도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원가족경험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가족 경험과 심리적 적응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존감과는 정적상관이 있으며 우울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존감과는 부적상관이, 우울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자녀 삼각관계도 자존감과는 부적상관이 우울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원가족 건강성과 자존감과는 정적상관이, 우울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부부갈등은 심리적 적응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삼각관계는 우울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자존감과는 정적상관이 우울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 결과

1) 기혼남성 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이 18.3(df=8)이며 유의수준이 낮고(p<.01), RMSEA 값이 .10, AGFI값이 .86, CFI 값이 .84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

<표 2>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여 자 (n=188) / 남 자 (n=123)		원가족경험			결혼 만족도	심리적적응	
		원가족건강성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삼각관계		자존감	우 울
원가족 경험	원가족 건강성		-.56***	-.41***	.29**	.32***	-.20*
	부모의 부부갈등	-.39***		.47***	-.30**	-.23**	.28**
	부모자녀 삼각관계	-.05	.37***		-.31***	-.23**	.27**
결혼만족도		.26***	-.06	.02		.51***	-.53***
심리적 적응	자존감	.29***	-.09	-.02	.38***		-.68***
	우 울	-.17*	.13	.15*	-.51***	-.52***	

*p<.05, **p<.01, ***p<.001

<표 3> 기혼남성의 적합도지수

적합도	X^2	df	*p*	GFI	CFI	AGFI	RMSEA
남 성	12.61	7	.08	.97	.92	.90	.08

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였다.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오차변량 e2와 e3의 오차항간에 상관관계가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기혼남성모형은 아주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X^2이 12.6(df=7)이며 유의수준이 높은 것(p>.05)으로 나타났다. 수정 후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기혼남성 구조모형의 구조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고,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구조경로계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간접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으면 두 잠재변수간의 관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배병렬, 2007)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까지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각 구조경로계수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전체효과분석은 <표 5>와 같다.

기혼남성의 어린시절 원가족 경험에 대한 인식은 현재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족 경험에 대한 인식은 현재 심리적 적응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과 가설2는 지지되었다. 그리고 현재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도 지지되었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기혼남성 모형의 전체효과를 살펴보면 원가족 경험이 현재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도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원가족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직접 영향력의 수준과 결혼만족도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 기혼남성들의 개인 심리적인 변인은 부부관계로부터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결혼 전 자신의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결혼 이후 부부관계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 기혼여성 모형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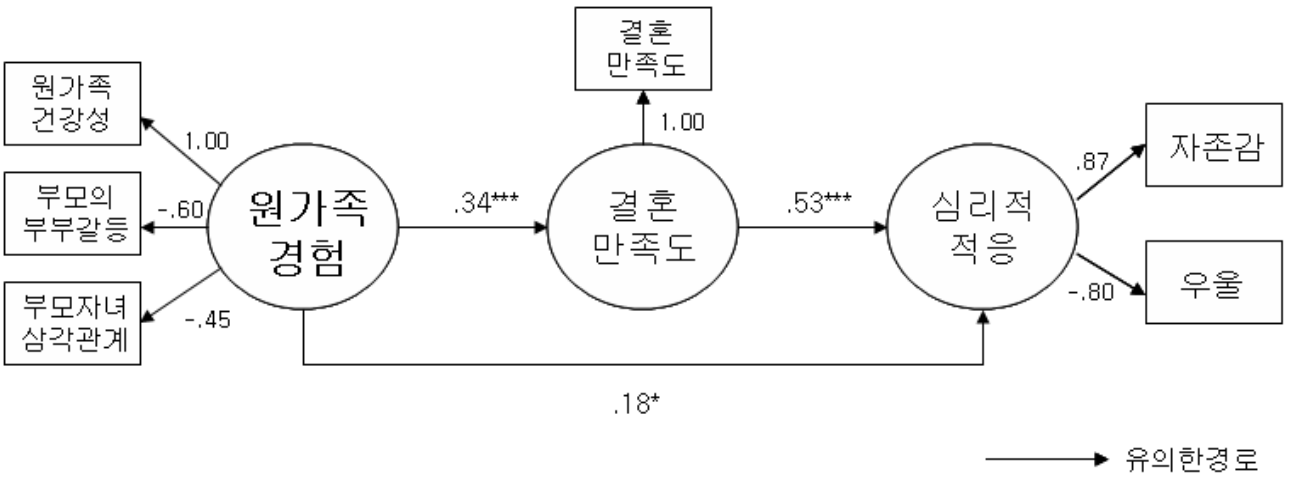
<표 4> 기혼남성 구조모형의 구조경로계수

잠재변수간의 구조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z값
원가족 경험 → 결혼 만족도	.35	.09	.34	3.72
원가족 경험 → 심리적 적응	.12	.06	.18	1.99
결혼 만족도 → 심리적 적응	.32	.06	.53	5.52

z > ± 1.96

<표 5> 기혼남성 수정모형의 전체효과 분석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원가족 경험 → 결혼 만족도	.34	×	.34
원가족 경험 → 심리적 적응	.18	.18	.36
결혼 만족도 → 심리적 적응	.53	×	.53



<그림 2> 기혼남성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33.6(df=8)이며 유의수준이 낮고(p<.001), RMSEA 값이 .13, AGFI값이 .84, CFI 값이 .74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였다.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오차변량 e2와 e3의 오차항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기혼여성의모형의 적합도는 아주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X^2이 14.3(df=7)이며 유의수준이 높은 것(p>.05)으로 나타났다. 수정 후 적합도 지수는 <표 6>과 같다.

기혼여성 구조모형의 구조경로계수는 <표 7>에 제시되어 있고,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각 구조경로계수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전체효과분석은 <표 8>과 같다.

기혼여성의 어린시절 원가족 경험에 대한 인식은 현재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지지되었으나 원가족 경험에 대한 인식이 현재 심리적 적응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기혼여성 모형의 전체효과를 살펴보면 원가족 경험은 현재 결혼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리적 적응에는 직적적인 영향보다 결혼만족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는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이 개

<표 6> 기혼여성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X^2	df	p	GFI	CFI	AGFI	RMSEA
여 성	14.31	7	.05	.97	.93	.9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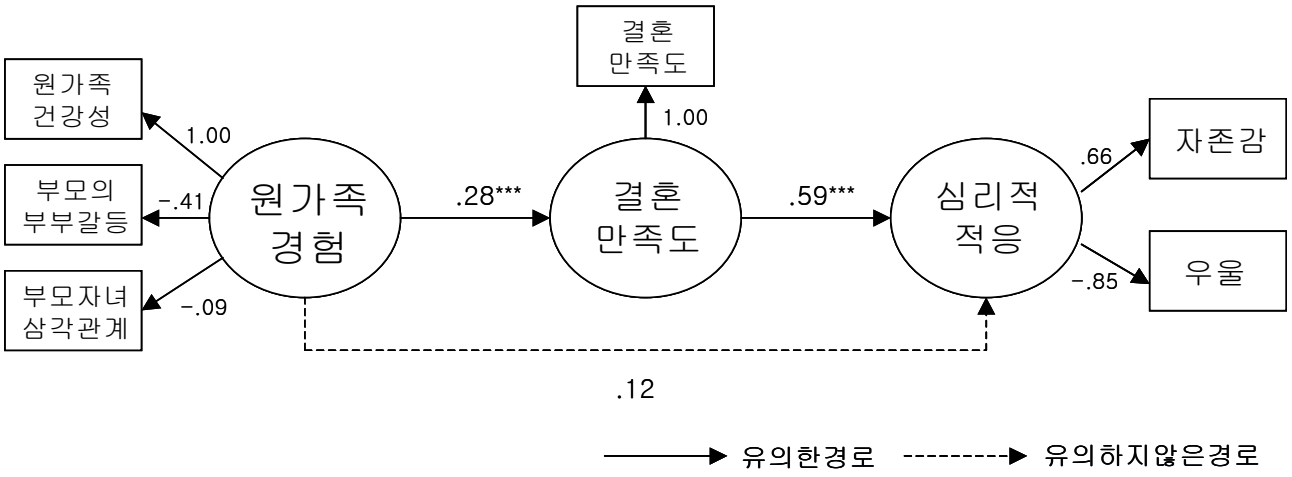
<표 7> 기혼여성 구조모형의 구조경로 계수

잠재변수간의 구조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z값
원가족 경험 → 결혼 만족도	.37	.08	.28	3.80
원가족 경험 → 심리적 적응	.06	.04	.12	1.56
결혼 만족도 → 심리적 적응	.20	.04	.59	5.77

z > ± 1.96

<표 8> 기혼여성 수정모형의 전체효과 분석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원가족 경험 → 결혼 만족도	.28	×	.28
원가족 경험 → 심리적 적응	.12	.16	.28
결혼 만족도 → 심리적 적응	.59	×	.59



<그림 3> 기혼여성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인의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에 원가족 경험은 결혼만족도를 통한 간접 영향만 미치며 현재의 부부관계를 통해 측정되는 결혼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경우 원가족의 영향보다 결혼 이후 부부관계가 심리적 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결혼 전 자신의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결혼 이후 부부관계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원가족 경험과 결혼만족도 중에서 심리적 적응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원가족 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만족도를 통한 간접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심리적 적응에 원가족 경험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만족도를 통한 간접영향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남녀간에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로 구성한 원가족 경험이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혼 남성 123명과 기혼 여성 188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경험은 기혼남성과 여성모두 결혼만족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원가족 관련변인이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들의 결과(전춘애, 1994; Cunnington, 1991; Forrest, 1991; Benson 등, 1993; Larson 등, 1998)와 일치했다. 또한 기혼부부가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부적응 수준이 높다는 권정란(2005)과 Couillard(1990)의 연구결과와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친밀감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양진선(200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현정(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혼남성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Gilligan(198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Gilligan(1982)은 건강하지 못한 원가족 경험이 남성보다 여성의 정서적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와같은 결과는 '관계'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여성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사회와는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인의 원가족보다 남편의 원가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들(김현정,1999; 전영주, 1998; 전춘애, 1994)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상희(2007b)의 연구에서 기혼남성의 경우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삼각관계로 이루어진 원가족 경험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혼여성의 경우 원가족 건강성은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삼각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결혼만족도가 현저히 낮거나 부부갈등 문제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상담자들이 현재의 부부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부부각자의 원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탐색해 나간다면 좀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게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원가족 경험은 기혼남성의 경우 심리적 적응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혼여성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결혼만족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원가족 건강성과 자존감이 정적 상관이 있음을 검증한 양진선(2004)과 기혼남성의 경우 원가족 건강성이 자존감에 직접영향을 미친다고 한 하상희(2007b)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원가족 건강성의 영향력은 하상희(2007a)의 연구결과에서 남성의 경우 부모세대로부터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아 세대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적응에 부부관계 요인만큼 원가족 영향도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처럼 기혼 남녀간에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를 다른 방식으로 대하거나 표현하며, 특히 아들에 대한 기대수준을 더 높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임정빈・정혜정, 1997; 차정화・전영주, 2002) 아들의 경우 원가족으로부터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원가족 경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현재 부부관계를 통해 측정되는 결혼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에 결혼생활이 기혼남성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혼생활에서 가부장권이 강한 한국 가족 문화의 특성 상 시댁과의 관계 등이 자신의 원가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부계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남성들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혼남성과 여성모두 현재의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결혼만족도와 자존감,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노은여와 권정혜(1997)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자존감간에 정적상관이, 우울간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부관계와 우울증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 밝힌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Beach et al., 1985; O'Leary et al., 1994; Rounsaville et al., 1979; Weissman, 1987, 노은여·권정혜, 1997, 재인용)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에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상의 심화로 심리적 부적응을 겪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우울증도 심하고 치료효과도 나쁘며, 재발율도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Merikangas, 1984). 또한 Gotlib과 Whiffen(1989)는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부부는 우울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실제로 기혼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감과 긍정적인 느낌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결혼이후 부부관계가 만족스럽고,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 적응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혼남녀의 경우 건강한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 주며 결혼만족도에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결혼 전 자신의 원가족에서의 상호작용을 건강하게 유지시켜나가는 것이 결혼이후의 부부관계 및 심리적 적응에 매우 중요함을 나타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원가족 경험은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적응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시절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인식한 가족의 건강성이나 부모님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 등의 원가족 경험이 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관계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족의 문제를 부부관계에서 세대간의 문제로 확대한 경험적 연구들(남순현, 2001; 전영주, 1998; 전연진, 2002; 하상희, 2007b 등)을 많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 이후 건강한 가족관계를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혼 전 가족생활주기의 발달 시기별로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가족구성원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60여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센터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 등의 참여를 의무화시킨다면 건강한 가족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혼남녀의 원가족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상담자가 원가족 경험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하여 문제를 바라보고, 배우자의 원가족 경험이 현재 부부관계 및 심리적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면 내담자들의 문제 해결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혼남녀의 연령 및 결혼기간별로 결혼만족도나 결혼 적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을 결혼기간별로 구분하여 원가족 영향력의 정도와 심리적 적응수준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로 제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 단위로 일반화 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승규(1994). 한국전통사회의 인간상. **전주우석대학교논문집, 16,** 9-28.

강전희(1995). **가정의 심리적환경과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대희(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정란(200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정혜·채규만(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8(1)**, 123-139.

김경자(2004).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상빈(1994). **가족 및 부부관계와 자녀의 심리적 특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일·정용철(2001).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2(1)**, 5-27.

김소향(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연(2001).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완일・김재환(1992). 대학생의 자기긍정감, 자기 복잡성 및 우울성향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생활연구, 10**, 249-270.

김용태(2000). **가족치료이론**. 서울 : 학지사

김현정(1999). **원가족 경험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청주시 결혼초기부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정・김명자(1999). 근원가족 건강도, 자아존중감, 결혼적응의 관계 - 청주시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39-60.

김현정・손정락(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존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남순현(2001).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성인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은여・권정혜(1997). 결혼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기혼여성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41-54.

박영화・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배병렬(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서연석(1999).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정아・최규련(1997).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 하우

심희옥(1996). 대학생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주는 귀인양식과 매개요인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원. **대한가정학회지, 34(4)**, 63-74.

양진선(2004).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 및 원가족 건강성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엄혜정・정혜정(2006).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2)**, 1-16.

오정옥(1999). 가족의 건강성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4(2),** 153-172.

옥경희(1995).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 **광주대학생생활연구, 2**, 1-16.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서울시 남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혜영(2000).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아(2007). **생태체계 변인과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정빈・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이종원(2002).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창만(1992).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천숙・이희자(1997). 가족체계유형 및 자아분화와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 **대한가정학회지, 35(3)**, 101-113.

전연진(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영주(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전영주・이성희(2006). 협의이혼청구자의 원가족경험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91-203.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현진・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정문자(2003).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_____(1999).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자녀 요인,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녀의 우울정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99-111.

최난경(2003).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선남・최외선(1995). 가정환경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형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3),** 31-42.

최외선・백양희・이미옥(1997).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7-40.

최인실(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심리적 적응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현미(1997). **원가족 척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하상희(2007a).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07b).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자존감 및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7-29.

한미향(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rtle, S. E., & Anderson, S. A.(1991). Similarity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levels of individuation. *Adolescence, 26,* 913-924.

Bartle-Haring, S., & Sabatelli, R.(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s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Benson, M.J., Larson, J., Wilson, S.M. & Demo, D.H.(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August)*, 663-672.

Becvar, D. S., & Becvar, R. J.(1988). 정혜정·이형실(1997)역. **가족치료 체계론적 통합.** 서울: 하우

Chung, H. J., & Gale, J. (2006). Comparing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korean and european american studen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8,* 367-381.

Coopersmith, S. (1967).*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Couillard(1990).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ar and dissimilar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 of orig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05-715.

Downey, G., & Coyne, J. C.(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50-76.

Fine(1988).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health on family of origin levels of state and trait anxiety, *Family Therapy, 15*, 51-57.

Fine, M. & Hovestadt, A. J.(1984). Perceptions Of Marriage And Rationality By Levels Of Perceived Health In The Family Of Origi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2)*, 193-195.

Gilligan(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Guerin, p. J., Fay, L. F., Burden, S. L., & Kautto, J. G.(1987). *Th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Marital Conflict: A Four-Stage Approch.* Basic Books.

Hovestadt, A.J., Anderson, W. T., Piercy, F.P., Cochran, S. W., & Fine, M.(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3)*, 287-297.

Larson, J. H., Benson, M. J., & Wilson, S, M. (1998).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marital attitudes and readiness for marriage in late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19(6)*, 750-768.

Lewis, R. A., & Beavers, W. R., Gossett, J. T. & Phillips, F. A. (1976). *No single thread*. N.Y.: Brunner/ Mazel.

Lopez, F. G. (1991). Pattern of family conflict and their relations to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ling and Development, 69*, 257-260.

Sabatelli, R. M. & Suzanne, B. H.(2003).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February)*, 159-169.

Sternberg, K. J. (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44-52.

Williamson, D. S. (1978). New Life at the graveyard: A method of therapy for individuation from a dead former 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4,* 93-102.

통계청. www. nso. go.kr

□ 접 수 일 : 2008년 0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4월 23일